



# 칭찬합시다

인쇄

서울시에 대한 궁금사항, 불편내용, 신고, 제안, 건의 등은 전자민원과 시민제안 통합사이트인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모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답변을 받으시려면 응답소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해 주세요.

상업성광고, 저속한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목적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제안·신고 문의 건의민원 SNS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송파센터) 김라숙 선생님 마음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선정

2018.02.12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양선정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는 선생님에게 저의 구만을 모시고 내방하거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서초권이 관악센터보다 송파센터가 교통 편리상 좀 더 편안한 분들도 계셨기에 더 송파센터의 상담예약도 많이 하였습니다. 서초구에는 워낙 큰 사업체를 잘 유지하다 부도나 사업실패로 거액의 부채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 저 역시 초기상담 대부분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큰 부채로 허덕이고, 누군가의 힘박 또는 추심을 받는 그 힘든 상황, 자체를 섬사리 이야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송파센터에 전화 드리고 동행상담을 진행하면 그 굳건히 닫힌 마음의 문도 선생님 앞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어리고, 정신과적 증세로 남자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기 힘들어하는 주민에게는 오히려 송파센터에 더욱 부탁드리게 되었고, 늘 잘 차분하게 잘 진행되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최근 자살시도로 가장 힘들어하셨던 분의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태워 무려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54세의 가녀리고, 어여쁜 그리고 마음 어린 어머님을 서초구마음건강센터로부터 의뢰 받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별거이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시댁의 강요에 의해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자녀 양육비도 도움 받지 못한 채 밀과 함께 살아오며 자신이 유일하게 질 할 수 있는 일을 택해 한 톨 남짓의 의류매장을 유지하다 매장질세, 관리비 6개월 체납에 살고 있는 주거지도 월세 체납하고, 그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받은 대출금, 은행 대출, 제2금융권의 대출 등 매장을 유지하며 현금이 생기는 대로 빚을 갚으려고 해도 매장 유지조차 어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수위가 높아져 자살 사고가 높아지신 분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 초기상담 할 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매우 조심스러워하였기에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권유 드려져, 자신의 이런 부채가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 하며 그래서 전화도 받기 무섭고, 집에 누군가가 문만 두드려도 너무 무섭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내기가 힘들어지자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어머니는 안내도했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날로 바로 전화 드리고 급히 예약을 잡고 바로 방문하였습니다. 다행이도 그 날, 상담시간에 여유가 있었지요.

그렇게 어린 마음으로 어찌 살아오셨을까 하였지만, 막상 조용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하기 쉽게 마련 된 상담실로 옮겨가 차 한 잔을 마시자, 자신의 이야기가 어느 덧 조곤조곤 더 자세히 풀려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선도 마주쳐 주시고, 과거력을 꼼꼼히 들어주시며, 따뜻한 수금의 표현으로 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용기도 더 많이 품게 해주셨습니다. 대개의 정신과적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도 알 뒤 없이 풀어놓기 마련인데, 두려움에 떨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분에게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담으로 문제해결부터 진행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는 서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시자, 점점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오고 이야기를 또렷하게 하시는 주민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안도되었고, 다시 자살시도를 하지 않으시란 확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질문할 사항은 두렵지 않도록 상담실 안에서 바로 통화하시도록 진행하여 불안감을 덜어주시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주셨지요.

그 후로 파산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힘을 내어 우리 구 주민은 여러 행정기관을 돌며 서류를 마련하고 하나씩 정리해가며 파산신청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나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상담 이후 행정기관을 찾으며 서류를 발급받고 스스로 작성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변하였으며, 이제 이 세대는 생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지원받으며 위기상황을 지나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세상이 무섭지만도 않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부분을 살펴주시면서 신청제도를 알려 주시는 좋은 분이 계셨다는 것이 삶이 힘이 되어요.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낯설고 무섭고 사람들이 너무 무뎠다고 생각했는데, 김라숙 선생님은 전혀 달랐어요. 이런 신청 제도를 통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아요. 이제 딸이 재수를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도 붙었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다시 세상에 살아갈게요. 선생님 꼭 김라숙 선생님께 다시 태어난 듯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는 너무 부끄러워서요. 꼭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송파센터) 김라숙 선생님 마음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선정  
2018.02.12

여러 차례 당부를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김라숙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경제적 부채를 경감하고 다시 삶의 희망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신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글피가기
- 목록
- 답변
- 수정
- 삭제

댓글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 주세요

등록

※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체크하세요

0/300자